

U대회 실사 마무리

실사단 “시민 유치 열기 엑셀런트”

“국제대회 치르기에 인프라·역량 충분 프레젠테이션 가장 짜임새 있고 훌륭”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2013하계 U대회를 치르기 위한 스포츠 인프라와 역량에 대해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실사단은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한 광주의 준비는 충분했다. 시민들을 통해 광주의 강력한 유치 열기를 체감했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광주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현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2013하계 U대회를 치르기 위한 스포츠 인프라와 역량에 대해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실사단은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한 광주의 준비는 충분했다. 시민들을 통해 광주의 강력한 유치 열기를 체감했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광주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현했다.

이 때문에 실사위원들은 PT에서 ▲선수단 수송문제 ▲재정확보 방안 ▲선수촌 건립 등 대회 전반에 관해 꼼꼼히 질문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으라”는 충실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로 일관했다. <경기장 실사>실사 위원들은 3~4일 이틀 동안 광주월드컵 경기장 등 관망시설이 미비한 곳에서는 향후 객석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런 평가는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과 빛고를 체육관에서 각각 조선대·전북대 친선 축구, 한·일 핸드볼 경기를 진행하는 등 국제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실증한 데 따른 화답이었다. 그러나 실사위원들은 염주체육관 실내수영장, 광주체고 실내 체육관 등 관망시설이 미비한 곳에서는 향후 객석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과 김철주 조선대 교수의 안내로 조선대 체육시설을 둘러본 이들은 기숙사의 수용능력, 신축될 다목적 체육관의 위치와 경기 가능한 종목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한편, 이들은 당초 실사 예정에 없던 동강대 체육관, 담양체육관, 전남대 실내체육관, 과기원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시 관계자를 당황케 하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4일 오후 나흘간의 광주 현지 실사를 마친 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국가차원 전방위 외교로 집행위원 부동표 잡아라

■31일 개최지 결정... 남은 과제

광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므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쟁도시와 함께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오는 31일까지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2013 하계U대회 개최지는 오는 31일(한국시각 6월 1일 새벽) 27개국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유치는 최근 해외유치 활동을 중간 점검, ‘5부능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승부의 전초전인 이번 실사에서 호평을 받아 고무된 표정이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들의 성향과 지지여부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니 1차에서 광주와 러시아 카잔이 동수로 점쳐져 2차 투표로 갈 것 같다”면서 “2차 투표에서 스페인 비교로 간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적인 관세는 광주와 카잔의 2

파전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스페인 비교도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회범 유치위원장은 “스페인 비교가 현지실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실사위원들로부터 들었다”며 “비교도 만만찮은 상대여서 개최지를 확정짓는 것 날까지 숨가쁜 전쟁을 벌여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유치는 오는 7월 남은 20여일 동안의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집행위원국 가운데 러시아와 같은 유럽에 속한 나라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3개에 달하는데 이번이 세번째 도전인 카잔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과 오일 달러를 무기로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밀한 ‘맞춤형’ 득표전략 마련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광주와 러시아 카잔이 동수로 점쳐져 2차 투표로 갈 것 같다”면서 “2차 투표에서 스페인 비교로 간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형 북연주·테니스 시연·텀블링... 실사위원들 스포츠 실력 과시 ‘눈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실사 도중 한국전통문화체험에 적극 나서서 등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유치 열기를 체감하는가 하면, 눈여겨볼 만한 스포츠 실력까지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실사위원은 남아공의 말롬베트 라레트. 그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시중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가워요”라고 한국말로 인사, 시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인사가 됐다. 특히 그는 지난 2일 옛 전남도청 특설무대에서 열린 U대회 유치기원 시민축제 무대에 올라 열정적으로 대형 북을 연주,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는 등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왕년의 스포츠 스타’였던 실사위원들은 자신들의 녹슬지 않은 기량을 직접 경기장에서 선보여 시민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스타브로스 두비스(그리스)는 지

난 3일 염주체육관 실내 테니스장에서 시니샤 야츠니츠(세르비아)와 직접 테니스를 시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스 데이비스컵에서 10년 연속 우승한 테니스 스타 출신인 그는 야츠니츠씨와 강력한(?) 서브, 스트로크 등을 주고 받으며 전성기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시중 과묵한 표정으로 실사에 참여해 ‘포커 페이스’로 불린 일본의 히사토 이가라시 위원도 광주체고 체조 꿈나무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광주체고 실내 체조연습장에 들른 그는 실사위원들이 “기량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손사래를 치며 무대에 올랐지만 화려한 텀블링으로 환호성을 자아냈다.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그는 이날 마루에 올라 공중돌기를 2차례 시연, 언론의 후레쉬 세례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 일문일답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을 이끌고 있는 스테판 버그 단장은 4일 “광주에서 가장 인상깊게 느낀 것은 시민들의 강한 열기였다”고 유치 열기를 높게 평가했다. 버그 단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합 기자회견 총괄에서 “각계의 유치 열기는 U대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열망을 보여준 것이었다”며 “광주가 보여준 열의와 준비상황을 오는 31일 열리는 FISU 집행위 회의에서 동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스테판 버그 단장과 일문일답. -5·18 민중항쟁과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가 FISU가 지향하는 정신과 맞는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매우 감명 깊었다. 광주의 이런 정신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광주정신은 대회를 유치하는 데 도

“광주정신 대회 유치에 큰 도움될 것”

움이 될 것이다. 동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광주를 다시 찾고 싶지는 않다. ▲광주가 U대회를 유치하든 안하든 다시 찾고 싶다.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 감명받았다. 특히 대학 도시로서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FISU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국제대회 유치도시로서 광주의 도시 안정성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조직위로부터 선수단 안전과 보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 실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대회를 유치할 경우 보안문제는 아주 잘 하리라 믿는다. -스페인 비교와 러시아 카잔과 비교할 경우 광주의 강점은 ▲경쟁도시에 대해 비교하지는 않겠다. 아직 완전하게 3

개 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U대회 개최도시 광주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우리들이 하는 주요한 일은 5월31일 FISU집행위에서 열리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조언, 권고하는 것이다. 유치를 위한 대회 운영예산 확보방안, 인천-광주공항간 선수단 수송문제에 대해 보완할 것을 조언했다. -2011년 중국 심전에서 U대회가 열리는 점이 광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FISU가 대륙별로 대회를 순회 개최한다는 정책은 없다. 2011년 대회가 우연히 광주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FISU는 특정대륙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MBC 문화탐방 행사 안내. 황산·장가제, 무안+서해항주생선리향, 무안+장사(장가제)전향. 광주/전남 북·동명방송사 판매, 광주MBC 문화탐방 사무실. 문의: 1062-226-6070